

제10호 | 2015.6.17

# 체리 수급 동향과 시사점



FTA

## 체리 수급 동향과 시사점

### 세계 체리 생산 및 수출 현황

□ 체리의 주요 생산국(경제권)은 EU, 터키, 미국, 중국, 칠레 등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함

○ 체리의 연간 세계 생산량은 약 240만 톤(2014/15년<sup>1)</sup>)이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생산량 비중은 78.8%에 달함

- EU 회원국 가운데 주요 체리 생산국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임
- 터키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체리 생산국이며, 연간 생산량은 약 50만 톤임
- 미국의 연간 체리 생산량은 약 40만 톤이며, 주산지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등임
- 중국의 경우 산둥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체리 재배지역이 확대되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
- 칠레는 신규 식재한 체리나무가 성목화되어 최근에 체리 생산량이 큰 폭(27.9%)으로 증가

표 1. 국가별 체리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증감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FTA 체결국	EU	725	706	834	622	699	675	-4.9	-3.4
	터키	610	613	400	500	500	500	-6.8	0.0
	미국	495	362	404	418	401	395	-3.1	-1.5
	중국	185	190	210	170	180	220	18.9	22.2
	칠레	57	77	86	65	86	110	44.7	27.9
	소계	2,072	1,948	1,934	1,775	1,866	1,900	-0.8	1.8
FTA 비체결국	우크라이나	169	228	220	220	220	220	0.0	0.0
	러시아	76	67	76	70	70	70	-2.8	0.0
	시리아	57	58	60	60	60	60	1.1	0.0
	우즈베키스탄	67	75	80	50	50	50	-21.9	0.0
	세르비아	29	22	30	30	30	30	1.1	0.0
	기타	101	68	73	76	80	82	7.4	2.5
총계	2,571	2,466	2,472	2,281	2,376	2,412	-1.1	1.5	

주 1) 생산량은 신선 체리(Fresh Cherry) 기준

2) 평년은 2009/10~2013/14년 생산량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USDA/FAS(2014.9), "Fresh Peaches and Cherries: World Markets and Trade"

1) 북반구 국가의 체리 유통연도는 1월부터, 남반구 국가는 11월부터 시작됨.

□ 체리의 주요 수출국은 칠레, 미국, 터키, EU 순으로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임

- 체리의 연간 세계 수출량은 약 30만 톤(2014/15년)이고, 그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수출량 비중은 88.5%에 달함
  - 칠레는 세계 최대 체리 수출국으로 수출량은 자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대(對) 중국 수출이 급증함
  - 미국의 체리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임
  - 터키산 체리는 EU 회원국으로 수출되며, EU의 체리 수출량은 최근 러시아의 폴란드산 과일 수입 금지조치로 감소함<sup>2)</sup>

표 2. 국가별 체리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증감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FTA 체결국	칠레	33	58	71	51	67	90	53.4	34.3
	미국	65	59	71	101	67	89	31.5	32.8
	터키	51	65	47	57	54	50	-7.4	-7.4
	EU	31	20	31	30	43	30	-2.2	-30.2
	캐나다	6	5	7	8	6	5	-21.1	-16.7
	호주	3	4	5	2	3	5	50.0	66.7
	소계	189	211	232	249	240	269	18.2	12.1
FTA 비체결국	세르비아	10	7	11	11	19	10	-6.2	-47.4
	기타	26	29	32	25	25	24	-10.0	-4.0
	총계	224	247	274	285	283	304	13.4	7.4

주 1) 생산량은 신선 체리(Fresh Cherry) 기준  
 2) 평년은 2009/10~2013/14년 수출량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USDA/FAS(2014.9), "Fresh Peaches and Cherries: World Markets and Trade"

**우리나라 체리 수입 현황**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와 수출국 작황호조로 수입량 급증

- 2012년 한-미 FTA 발효 즉시 기준관세(24%)가 철폐됨에 따라 미국산 체리 수입이 전년 대비 96.9% 증가
  - 전체 체리 수입량은 9,454톤이며, 그 중 미국산이 98.6% 차지함
- 2014년 미국 체리 주산지인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46.4% 증가
  - 전체 체리 수입량은 1만 3,360톤이며, 그 중 미국산 비중은 97.9%임

2) EU의 신선 체리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임(USDA 2014). 러시아는 폴란드산 사과, 배, 앵두, 체리 등을 포함한 모든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2014.8.1., BBC News).

- 그 외에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소량 수입됨
  - 미국산 체리 수입은 4~8월에 집중되는 반면, 뉴질랜드산과 호주는 12월~익년 2월, 우즈베키스탄산은 6월에 주로 수입

표 3. 연도별 체리 수입량 동향

단위: 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3,860	3,800	4,982	9,454	9,136	13,360	122.9	46.2
미국	3,691	3,608	4,737	9,325	8,936	13,080	126.0	46.4
호주	0	6	28	8	9	24	213.0	166.7
뉴질랜드	168	159	131	121	145	109	-24.8	-24.8
우즈베키스탄	0	3	81	1	46	147	782.0	219.6

주: 평년은 2009~2013년 수입량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FTA 발효 이후, 미국산과 호주산 체리 수입가격 하락

- 2012년 이후, 미국산 체리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2015년 1~5월 평균 수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3% 하락
- 한·호주 FTA 발효 이후 호주산 체리 수입가격(2014년 12월~2015년 2월 기준)은 평년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5%와 15.0% 하락

표 5. 수입 체리의 가격 비교

단위: 원/kg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월)	등락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가격	미국	15,739 (21,592)	13,131 (15,644)	13,497 (19,998)	12,533 (15,438)	12,438 (18,482)	- (15,845)	- (-13.1)	- (-14.3)
	우즈베키스탄	5,887	5,784	5,862	4,747	4,738	-	-	-
	뉴질랜드	18,069	17,336	19,396	19,472	19,589	17,605	-6.2	-10.1
	호주	18,890	17,110	19,495	17,419	16,503	14,034	-21.5	-15.0
관세율 (%)	미국	24	24	24(0)	0	0	0	-	-
	호주	24	24	24	24	24(0)	0	-	-

주 1) 수입가격=[수입단가 × 환율 × (1+관세율/100)]  
 2) 미국('12.3)과 호주('14.12)는 FTA 발효연도의 해당 월부터 관세율을 0%로 적용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24% 적용  
 3) 미국 수입가격의 ( )는 각 연도별 1~5월까지의 누적 가격임  
 4) 우즈베키스탄산 체리는 주로 5~6월에 수입되어, 2015년 6월 현재 수입실적은 없음  
 5) 뉴질랜드와 호주는 수입시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12월~2월까지의 누적 가격으로 산출  
 6) 평년은 2010~2014년 수입가격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은행, 국가별 FTA 협정문

□ 2015년 체리 수입량은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 및 미국 캘리포니아산 생산량 증가로 5월까지 급증

- 2015년 4~5월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캘리포니아산의 작황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
  - 그러나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61%를 차지하는 북서부지역(워싱턴, 오리건)의 개화 및 수확시기 강우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6월 이후 수입량도 감소 전망 (KREI 농업관측, 2015.6.12.)
- 한·호주 FTA 발효(2014.12.12.) 즉시 기준관세(24%)가 철폐되어 호주산 체리 수입량은 급증
  - 호주산 체리 수입량(12월~익년 2월): 12톤('11/'12) → 9톤('12/'13) → 5톤('13/'14) → 251톤('14/'15)

표 4. 월별 체리 수입 동향

단위: 톤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2월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월	1월	2월	4월	5월	합계
미국	0	0	0	80	1,856	4,743	5,592	809	0	0	0	179	4,668	4,847
우즈베키스탄	0	0	0	0	0	146	0	0	0	0	0	0	0	0
호주	0	5	0	0	0	0	0	0	19	209	23	0	0	251
뉴질랜드	45	65	5	0	0	0	0	0	39	74	37	0	0	150

주: 각 년도 3월, 9~11월 수입실적은 없음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우리나라 체리 수급 현황**

□ 우리나라 체리 공급량은 수입량 증가와 함께 국내 생산량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

- 2014년 체리 공급량은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2배와 44.1% 증가한 1만 4천 톤이며, 전체 공급량의 95.3%를 차지하는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전체 공급량 증가
- 2014년 체리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44ha이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체품목 육성사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체리 주산지인 경주의 체리 재배면적은 58ha에 달하며, 지자체의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3ha 증가
- 국내 소비자의 수입과일 선호도 증가에 따라 체리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산 체리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현재 국산 체리의 가격은 미국산보다 낮고, 보다 안전한 국산 체리와 도시민·학생들의 체리 농장 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6. 체리 공급 및 가격동향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생산량(톤)	289	267	236	355	588	656	89.0	11.6	
수입량(톤)	3,860	3,800	4,982	9,454	9,136	13,360	113.9	46.2	
공급량(톤)	4,149	4,067	5,218	9,809	9,724	14,016	112.6	44.1	
재배면적(ha)	44	44	62	81	120	144	105.1	20.0	
가격(원/kg)	국산도매	7,498	9,180	10,080	10,910	10,313	8,279	-13.7	-19.7
	수입소매	-	-	-	-	17,920	19,392	-	8.2

주: 평년은 2009~2013년 수입량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GTA,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주산지별 거래실적, aT KAMIS

□ 2015년 국산 체리 생산량은 주산지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

- 2015년 경주지역 체리 생산량은 개화기(4월 말) 저온현상으로 착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며, 대구지역은 증가할 전망
- 국산 체리의 주출하시기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으로 미국산 체리 수입시기와 중첩됨에 따라 출하가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

**시사점**

□ 체리 수입선이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세계 주요 체리 생산국과 수출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며, 기준관세가 대부분 완전 철폐됨
- 최근 FTA가 발효된 호주산과 발효를 앞둔 뉴질랜드산 체리는 관세 인하효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산 체리는 낮은 수입단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 확대 잠재력을 보유함
- 칠레산 체리는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에서 ‘우려병해충’ 11종이 발견(2014.1)되어 신선체리에 대한 수입 제한은 장기화될 전망이고, 현지 생산량 증가와 함께 초산과 설탕 등 이외의 재료를 이용해 가공한 체리 수입 증가

□ 국내 체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종 개량 및 기술지도 시급

- 국산 체리 수확기가 미국산 수입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경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당도, 크기 등 품질 면에서 국산이 열위에 있음
- 체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

## □ 도시민과 학생 대상의 농촌·농장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등 6차 산업화 지원 필요

- 최근 도시농업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리를 테마로 한 농촌·농장 체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 관광업체의 농촌 관광 상품 개발, 농가의 농촌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 농촌 관광 안내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체리산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 제고

### 〈참고문헌〉

국별 FTA 협정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농업관측 통계시스템(OASI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월보(수입과일).2015년 06월호  
USDA/FAS(2014.9), "Fresh Peaches and Cherries: World Markets and Trade"

작성자 : 이수환, 이현근 연구원, 지성태 부연구위원 감 수 : 박준기 연구위원
---